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0세기 중·후반부터 인종주의 확산을 부추기는 표현물에 대한 국가적 대응의 요청이 본격화되었다. 1948년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Genocide Convention)」과 1965년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은 각각 제노사이드에 대한 직접 혹은 공연한 선동, 그리고 인종적 우수성이나 적대감에 근거한 사상의 전파와 인종 및 피부색·민족적 출신이 다른 집단에 대한 폭력행위를 비롯한 차별 및 폭력 선동의 금지를 규정하고 회원국의 국내법 제정을 요청하였으며,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1960년대부터 인종에 기한 차별과 폭력 선동을 규제해 왔다. 이는 표현행위를 통하여 인종차별이 확산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성이 증대한다는 이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나아가 차별의 대상이 되는 집단에 가해지는 언어적 공격이 비단 인종에 국한되지 않고, 종교, 성별, 성적지향, 장애 등에 기해서도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규제 대상이 확대되어 왔다.

이와 같이 차별의 대상이 되어 온 주요 집단을 향하여 그 차별과 편견을 확산시키는 표현행위가 혐오표현으로 명명되면서 혐오표현 규제법으로 불리고 있으며, 주요 유럽국가들은 혐오표현에 대한 형사규제 등의 내용을 일찍이 법제화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표현에 대한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 또는 혐오표현의 성질상 표현물 자체를 규제하는 것으로는 규제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우려 등으로 법적 규제, 특히 형사규제에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혐오표현에 대한 형사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독일과 영국의 법제 및 형사규제 외의 방식을 채택하는 미국과 일본의 법제를 살펴보는 것을 통하여 향후 국내에서의 논의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조사를 진행하고자 한다.

한편, 혐오표현은 21세기 인터넷 공간의 등장과 함께 그 확산이 용이해지는 동

시에 이에 대한 대항 가능성도 높아지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기존 혐오 표현 법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막론하여 적용되는 것이지만, 온라인의 특성에 비추어 규제 정도와 방식의 차이가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온라인 공간에 대한 표현의 자유의 제한은 위축효과가 크고, 물리적으로 규제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상 표현규제와 혐오표현 규제를 동시에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미디어 규제체계의 변화와 재정립의 필요성으로 인해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어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OTT서비스는 통신망을 이용하여 방송과 유사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수직적 규제체계를 가진 방송서비스와 수평적 규제체계를 가진 통신서비스의 어느 편에서 규제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으며, 세계적으로 수평적 규제체제로 수렴해가는 경향이 있으나 국내에서는 방송통신융합 규제 체계의 재정립 논의와 맞물려서 담론이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혐오표현은 변화하는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도 계속 생산,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혐오표현 규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혐오표현 규제 자체의 논의와 방통융합에 따른 미디어 규제 체계 변화 및 OTT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매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방안의 논의 양자가 검토되는 동시에 다변화된 매체별로 혐오표현의 확산방식, 대항언론 발생 및 대응가능성의 정도, 규제 방식과 규제 유효성 등에 차이가 있는지도 연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점을 감안하여 해외 미디어 규제 법제 연구 자료로서 앞으로의 논의에 활용하기 위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표현내용, 즉 콘텐츠로서 규제대상이 되는 혐오표현 법제를 정리하고 특히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응을 목적으로 한 규제 사례를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전개

본 연구는 총 4장으로 구성하여 전개된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과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을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혐오표현의 해악성과 규제 필요성에 관한 논의와 함께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 변화 논의를 다룬다.

제3장에서는 독일, 영국, 미국, 일본의 혐오표현 실태와 배경, 법제, 판례, 자율규제 사례를 정리하여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해외 법제의 국내 시사점과 함께 전체 연구조사 내용을 정리한다.

이상의 연구 수행을 위해 본 연구는 국내외 문헌연구, 국제규범 및 해외 입법례를 비롯한 판례·자율규제 등 규제사례 조사 분석 등의 연구방법을 주요하게 사용하였다.